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 진 숙 · 김 영 희¹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혜천대학 간호과¹

= Abstract =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in Adolescent of Social Welfare after School Program

Jin Sook Han · Young Hee Kim¹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University¹

Objectives: To determine sexual education program would increas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adolescents of social welfare after school program.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 D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January, 2009 to March 2009. This program consisted of 5 subtopics and provided 5 sessions. Study design was pre-test, post-test single group preliminary design.

Results: Sexual knowledg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ost-test group than the pre-test group ($t=-5.924$, $p=0.000$). Also, sexu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ost-test group than the pre-test group ($t=-3.817$, $p=0.003$).

Conclusion: Sexual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enhance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f adolescent in social welfare and functional broken home. They are lack of interrelation with parents. Therefore, continuous, repeated sexual education program of adolescent in social welfare and broken home is necessary.

Key Words: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ocial welfare adolesc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의 변화를 거치면서 TV와 대중매체, 컴퓨터 등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성적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자극적인 성문화는 사춘기인 청소년들의 삶에 쉽게 침투하여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장애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년의 첫 성경험 평균연령은 중학생이 13.3세, 고등학생이 15.2세로 첫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성경험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도 32.3%로 안전하지 못한 성경험을 하고 있으며, 성경험이 있는 여고생의 26.9%

교신저자: 김영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도서관길 721
혜천대학 간호과
전화번호: 042-580-6387, 팩스번호: 042-580-6289
E-mail: kimyh@hu.ac.kr
원고접수: 2010년 5월 24일, 1차 수정: 2010년 6월 13일
2차 수정: 2010년 6월 22일, 원고채택: 2010년 7월 18일

는 낙태를 경험하며, 음란물 접촉 경험은 71.1%, 자위 경험률은 43%를 나타내고 있다(손애리 등, 2006).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이어서 인도에서의 한 연구결과는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응답이 남성 33%, 여성 14%이었고, 성건강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자료는 TV 등과 같은 대중매체(Jaya & Hindin, 2009)와 친구이었으며(Sachdev, 1998), 네팔의 경우에는 대학생 응답자의 39%가 결혼 전 성관계를 했고(Adhikari & Tamang, 2009),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47.8%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고등학생의 35%가 현재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38.5%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DC, 2008).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십대 임신과 미혼모의 증가, 낙태, 성병, 성폭력, 성범죄 등의 예방과 함께 사회 전반에 청소년을 위한 성행동이나 성교육 수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정체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의 습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의 실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다방면의 접근은 성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도록 해 준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를 발간해 중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실에서는 보건교과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짧은 성교육 비디오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또 보건교과에는 폭력예방, 전염병 등 성교육과는 관련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연합뉴스, 2010.5.10).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김석우와 한홍련(2005)의 연구결과 성교육 교수학습 자료로 비디오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64.6%, 매우 불만

이 13.8%나 보고되고 있으며 김재형(200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50.6%가 보통, 37.4%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성교육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은 그 어느곳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성교육은 단순한 성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인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김재형, 2008). 그러나 한국의 부모 자녀간에는 아직까지 성에 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75.4%,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은 23.4%이었으나 그나마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고 있었다(김재형, 2008). 이처럼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성태도와 바람직한 성지식의 습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부모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영주 등(2004)은 부모 자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 명료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의 정확한 성지식의 습득이나 호기심의 감소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은주(2008)는 중학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성태도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행접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이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개방적인 청소년들의 경우 긍정적인 성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용미(2009)는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중학생에게 긍정적인 성태도와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태도의 습득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부모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경우 성에 대한 고민을 같은 시설내의 친구와 공유하는 경향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성지식 수준이 상당히 낮고 절반 이상이 시설내에서 음란물을 접한 경

힘이 있어, 성충동이 더 강화되고, 성의 상품화와 폭력적인 성,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많아(남영주 등, 2004) 성에 관한 지지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과 함께 지역사회를 통한 성교육도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보건소, 적십자, 기타 종교단체나 개인이 유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성문화연구소(2002)는 미혼모 시설, 쉼터 등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아닌 사후 교육이었으며, 남영주 등(2004)은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성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성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 1) 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성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성지식 변화를 확인한다.
- 2) 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성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성태도 변화를 확인한다.
- 3) 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성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성교육을 받을 기

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과 기능적 결손가정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의 D시 소재 천주교 운영 사회복지 시설에서 방과 후 학습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참여를 허락한 중학생 청소년 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전에 시설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도중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쓰지 않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한 참여자는 계속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교육이 끝날 때까지 참여한 참여자는 31명으로 2명은 중도 탈락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교육에 대한 가정 내 부모의 도움과 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의 성교육 효과를 보기 위한 예비조사 연구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였다.

교육 프로그램 구성 전에 대상 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도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대상청소년들이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 5가지 주제인 이성교제, 생식생리, 피임, 임신·출산·인공유산, 성병·에이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선행연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2001)의 중학생 성교육 자료를 근거로 모성간호학을 전공한 본 연구자 2인이 모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설청소년의 성교육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가지 주제는 1주: 이성교제와 인간관계, 2주: 생식생리(사정, 발기, 월경 등), 3주: 피임법과 성병예방, 4주: 임신과 출산, 인공유산, 5주: 성충동과 성폭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를 두 반으로 나누어 한 반에 매주 1회에 90분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5주에 걸쳐 5회씩 제공하여 두 반에 총 10회를 제공하였다. 각 주제별 내용은 첫째 주는 사회심리적 차원의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이의 구체적 학습목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며, 2주에는 남녀의 생식생리

와 그 특성을 설명하여 남녀의 성적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다. 3주에는 피임과 성병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알게 하는 것이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설명 후 개인의 의견을 들어 보며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4주차는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 주로 비디오 등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하였으며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알게 함에 있다. 5주째 성교육 내용은 주로 성 행동에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루었는데 남학생만 있는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성애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 강의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성 관련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교육하였다. 5주 동안의 모든 강의는 대학에서 성학과 모성간호학을 강의하는 연구자가 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를 끝나는 매시간 구두 테스트를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부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성교육 평가는 성지식과 성태도에 관하여 강의 전과 후에 실시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교육의 특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 특성을 감안해 교육시간마다 대상자와의 개별 질문과 상담을 병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이 가출경험이 많은 것을 감안해 교육 주제 중 예방에 초점을 두어 피임법, 성병, 성충동 등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초등학교에서 다룬 것으로 파악되는 생식생리, 해부학적 구조는 간단히 다루었다. 또한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강의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각 내용에 대한 그룹토의나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생각해 보고 결론을 유도해 보도록 인도하였다. 처음 참여한 대상자는 33명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상 사유로 도중에 탈락한 2명을 제외한 31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을 반

영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양순옥과 김신정(2004)의 성교육 평가도구인 성지식과 성태도 도구를 활용하였다. 성지식 평가도구는 '신체 및 심리발달' 20문항, '성문화 및 성윤리'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태도는 '신체 및 심리발달' 9문항, '인간관계 이해' 8문항, '성문화 및 성윤리'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문항은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연구시작 전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5차 교육이 완료된 이후 동일한 도구로 다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성지식도구의 내적 일치도에 대한 신뢰도는 양순옥과 김신정(2004)의 논문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으며 성태도 도구의 내적일치도에 대한 신뢰도는 양순옥과 김신정(2004)의 논문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7$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교육 전후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21명(67.7%), 여자가 10명(32.3%)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14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이 13명(41.9%),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8명(58.1%)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생이 좀 더 많았고,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표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		
Characteristics	N	%
Sex		
Boy	21	67.7
Girl	10	32.3
Grade		
1	11	35.5
2	14	45.2
3	6	19.4
Residential Form		
Social Welfare	13	41.9
Community (broken home)	18	58.1
Religion		
Protestant	9	29.0
Catholic	16	51.6
None	6	19.4
Level of School Record		
Upper	1	3.2
Middle	21	67.7
Low	9	29.0
Family		
Parents	12	38.7
Father, Stepmother	2	6.5
Single Mother	4	12.9
None	13	41.9
Sexual Identification		
Very Satisfied	15	48.4
Satisfied	11	35.5
Medium	4	12.9
Not Satisfied	0	0.0
Not Very Satisfied	1	3.2
Experience of Date		
Yes	20	64.5
No	11	35.5
Experience of Run Away		
Yes	9	29.0
No	20	64.5
No Response	2	6.5
Experience of Masturbation		
Yes	6	19.4
No	20	64.5
No Response	5	16.1
Experience of Sex Violence		
Yes	2	6.5
No	26	83.9
No Response	3	9.7

의 가족 형태는 양친부모 12명(38.7%), 친부, 계모가 2명(6.5%), 편모가 4명(12.9%)이었다. 종교는 천주교가 16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중간이 21명(67.7%)이었다. 자신의 성적 정체감에 있어서 매우 만족이 15명(48.4%), 만족이 11명(35.5%)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의 교제경험은 20명(64.5%)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출경험은 9명(29.0%)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자위경험은 6명(19.4%)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보면 성교육 전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성교육 후 학년($F=4.55$, $p=0.01$), 거주형태($t=-2.74$, $p=0.01$), 자위행위 경험($t=2.94$, $p=0.00$)에 따라 성지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

3. 성교육 효과

1) 성지식

대상자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 성지식의 평균 점수는 14.03 (± 6.30)이었으며 교육 실시 후 성지식 점수는 21.32 (± 4.65)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924$, $p=0.000$) (표 3).

2) 성태도

대상자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 성태도의 평균 점수는 76.72 (± 7.19)이었으며 교육 실시 후 성태도 점수는 83.90 (± 9.44)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17$, $p=0.003$) (표 3).

표 2. Knowledge and Attitude of Sexual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

Characteristics	Knowledge of Sexuality					Attitude of Sexuality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Boy	21	14.38±6.71	.44 (.66)	21.95±4.78	.09 (.28)	75.78±6.17	-1.05 (.29)	83.70±9.93	-.16 (.87)	
Girl	10	13.30±5.59		20.00±4.26		78.70±8.19		84.30±8.81		
Grade										
1	11	12.09±6.18	.97 (.39)	21.54±3.44	4.55 (.01)	74.23±5.14	1.32 (.282)	85.27±9.78	2.43 (.10)	
2	14	14.57±7.14		19.35±5.27		77.28±9.23		80.35±8.55		
3	6	16.33±3.72		25.50±1.37		79.95±3.02		89.66±8.59		
Residential Form										
Community (broken home)	18	13.92±5.09	.08 (.93)	23.76±3.70	-2.74 (.01)	75.18±7.02	1.01 (.32)	84.69±8.56	-.39 (.69)	
Social welfare Family	13	14.11±7.20		19.55±4.54		77.83±7.31		83.32±10.23		
Parents	12	13.00±6.57	.35 (.78)	19.91±4.67	2.56 (.07)	76.50±6.70	.75 (.53)	85.07±10.44	1.13 (.35)	
Father, Stepmother	2	16.00±5.65		17.50±6.36		81.5±14.84		87.50±6.36		
Single Mother	4	16.50±10.47		19.50±4.43		80.00±6.48		76.00±9.20		
None	13	14.11±7.20		19.55±4.54		77.83±7.31		83.32±10.23		
Sexual Identification										
Very Satisfied	15	14.73±5.90	.11 (.95)	21.26±5.33	.05 (.98)	75.71±6.46	.54 (.65)	84.99±0.47	.17 (.91)	
Satisfied	11	13.45±7.44		21.09±4.30		75.97±9.19		83.18±7.88		
Medium	4	13.25±6.70		22.25±4.50		80.25±3.40		83.00±10.73		
Not Very Satisfied	1	13.00		21.00		71.00		79.00		
Experience of date										
Yes	20	14.30±6.11	.31 (.75)	21.35±4.83	.04 (.96)	76.65±7.15	-.07 (.94)	83.00±9.61	-.71 (.48)	
No	11	13.54±6.91		21.27±4.51		76.85±7.62		85.53±9.33		
Experience of Run Away										
Yes	9	16.33±6.44	1.07 (.30)	23.55±4.61	3.15 (.08)	76.22±7.59	.20 (.65)	87.44±8.48	2.39 (.13)	
No	20	13.80±5.91		20.45±4.24		77.52±7.03		81.99±8.09		
Experience of Masturbation										
Yes	6	14.67±3.07	.05 (.95)	25.16±2.40	2.94 (.00)	73.45±7.76	-1.57 (.12)	88.66±6.50	1.74 (.09)	
No	20	14.50±6.87		19.70±4.31		78.55±6.70		81.84±8.81		

표 3. Effects of Sexual Education

(n=31)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Difference	t	p
Knowledge of Sexuality	14.03±6.30	21.32±4.65	7.28±6.85	-5.924	0.000
Attitude of Sexuality	76.72±7.19	83.90±9.44	17.17±12.53	-3.187	0.003

Data are means±SD.

고찰

성교육은 인간존중 정신에 입각한 교육으로 남녀의 성을 기초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성장발달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부합되도록 돕는 교육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원만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는 인간 교육을 의미한다(임미림,1996). 이러한 성교육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교육을 학교 성교육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성교육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모의 지지와 교육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성지식과 성태도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성지식은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Esere, 2008; 송향숙, 2005; 박선희, 2004; 박효미, 임미영, 2003; 한유정, 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통해 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태도의 형성으로 자기통제력을 지닌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교육시 제공되는 정보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성교육 방식보다는 그룹 토의나 그룹 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Esere, 2008). 본 연구에서 시설 거주 청소년과 기능적 결손 가정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성지식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된 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및 행위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한유정(199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생, 남녀의 신체발달과정, 남녀의 심리적 특성, 이성교제, 성적 사고와 예방 등을 내용으로 3차시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지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고, 박효미와 임미영(2003)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실시 후 중학생의 성지식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사춘기 초기 성적 관심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성지식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인터넷으로 36%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선생님으로부터는 1.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이성옥, 2000)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지식을 접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성지식의 습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차후에 성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는 성교육 전에는 차이가 없었고 성교육 후 1학년 보다는 3학년,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는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는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지식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교육에 더 열심히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며,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일수록 더 성에 대해 관심이 있어 성교육에 열심히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성교육 전후 지식점수에서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사춘기의 대표적인 2차 성징은 초경과 몽정이다',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로 성교육 실시 후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에이즈 예방 점수가 가장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들에게 사춘기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콘돔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성교육 전후 성태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Esere, 2008; 송향숙, 2005; 박선희, 2004; 박효미, 임미영, 2003; 한유정, 1997)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남녀 간에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반응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경향이며 부모나 교사로부터 솔직한 성지식을 습득할 경우 장차 건전한 성지식과 성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장말희, 1998) 성인이 되기 전의 사춘기에 적절한 지식과 태도의 습득을 위한 격려가 요구된다.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습득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최용미(2009)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성태도와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올바른 성 윤리적 태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주희 등(2003)은 일상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바람직한 성태도를 형성하고 성경험의 가능성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해 평상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다른 인성 영역뿐 아니라 성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좋은 태도의 습득을 위한 부모와 같은 지지자가 부족하며 또한 태도의 습득은 지식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학습과 교육의 결과로 가능하므로 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항별로 교육전후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청소년기에 이성친구가 없다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성에는 책임이 따른다'였는데, 이성교제와 성적 책임에 대한 태도가 가장 변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 성교육의 한계, 부모와의 지지 및 상호작용 부족 혹은 결여 등으로 바람직한 성지식과 태도의 형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시설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방과후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성교육들은 대중을 상대로 집단 성교육에는 도움이 되나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배려하고 있지 못하므로 대상자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특수 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예비 연구이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그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개인의 성생활뿐 아니라 성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차후 연구 시 수정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직후 1회 조사만으로 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고 둘째로는 대조군을 두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춘기에 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배려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성지식 및 성태도의 습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거주 청소년과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총 31명의 중학생이 매주 1회 총 5회의 성교육을 받았으며, 연구도구로는 중학생 성교육 측정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성지식과 성태도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지식의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미쳤으며($t=-5.924$, $p=0.000$), 성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87$, $p=0.003$). 성교육 전후 지식점수에서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에이즈 예방 점수가 가장 변화되었고, 성태도 문항별로 교육전후 이성교제와 성적 책임에 대한 태도가 가장 변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히 가정의 지지와 격려가 부족하여 잘못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들의 성적 관심과 호기심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습득하여 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한 성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 성교육이 성지식과 성태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성교육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일회성의 측정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종단적인 연구의 실시를 제안한다.

2. 성교육의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지식과 태도의 변수 외에 실제로 성교육 후 의사결정의 변화와 성위험 행위의 실제적인 변화 즉 피임법의 사용 여부, 성병 감염 횟수 등과 같은 실제 행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3. 다른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성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 자원부.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함께 풀아가는 성이야기-중학교. 2001
- 김석우, 한홍련. 중학생의 성교육 인식조사 및 성별에 따른 요구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2005;36(1):125-141
- 김은주. 중학생 성교육에 따른 성태도 변화의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8;17(4):403-410
- 김재형. 성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 김주희, 손인일, 강성희. 성태도, 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03;41(1):111-124
- 남영주, 유안진, 옥선화. 시설청소년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2004;35(2):273-292
- 박효미, 임미영. 멀티미디어 성교육 프로그램이 남자중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2003;9(2):173-178
- 손애리, 천성수, 박지은, 이호진, 양미영. 서울시 청소년의 성과 에이즈 지식, 태도, 신념, 행태 조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 지회, 삼육대학교 에이즈 예방연구소. 2006
- 송향숙.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성옥. 일개 중학교 남녀중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관심도에 관한 실태. 공주문화대학 논문집 2000;27:269-283.
- 임미림.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996;8(2):201-212.
- 장말희. 성교육을 통한 초등학교의 성지식 및 성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장지옥. 중학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실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용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국성문화연구소.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성건강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 한국성문화연구소. 2002
- 한유정.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연합뉴스. 현실 못 따라가는 학교 성교육, 2010, 5. 9 [cited 2010 May 10]. Available from: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 Adhikari R & Tamang J. Premarital sexual behavior among male college students of Kathmandu, Nepal. BMC Public Health 2009;9(241):1-9
- Eaton DK, Kann L, Kinchen S, Shanklin S, Ross J, Hawkins J, Harris WA, Lowry R, Mcmanus T, Chyen D, Lim C, Brener ND, Wechsler H.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2007 CDC [serial Online] June 6, 2008[cited 2010 May 10];57(SS04)1-131.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mmwr
- Esere MO.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at risk sexual behavior of school-going adolescent in Liorin, Nigeria. African Health Science 2008; 8(2):120-125
- Sachdev P. Sex on campus: a preliminary stud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university in Delhi, India. J Biosoc Sci 1998;30(1):95-105
- Jaya J & Hindin MJ. Premarital romantic partnerships: attitudes and sexual experiences of youth in Delhi, India. Int Perspect Sex Reproduct Health. June 2009;35(2):97-104